

깨달음 나누기운동 40년 아리아라트네 박사 인터뷰

“비폭력은 행복한 삶 여는 길”

사르보다야 슈라마디나운동을 제창하여 세계 곳곳의 지역개발과 빈민구제에 헌신해 온 스리랑카 아리아라트네박사(65세)가 (사)한국 JTS(이사장 범윤스님) 설립 기념법회 초청강연차 지난 10월28일부터 11월2일까지 내한했다. 아리아라트네박사는 10월26일 조계사문화교육관에서 개최된 초청강연회에서 “자비의 종교인

불교계가 앞장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당위성을 표명했으며 “사랑과 나눔의 불교정신을 통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리아라트네 박사를 만나 깊게 배운 그의 불교적 실천사상과 운동에 대해 들어 본다.

(편집자 주)

-올해의 간디평화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수상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GPP(간디평화상)를 받게되어 정말 기쁩니다. 왜냐하면 간디는 비폭력과 건설적인 일을 상징하기 때문이며 이상은 제가 평생해온 일에 대한 인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비정부운동인 사르보다야 슈라마디나 운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르보다야’는 만민의 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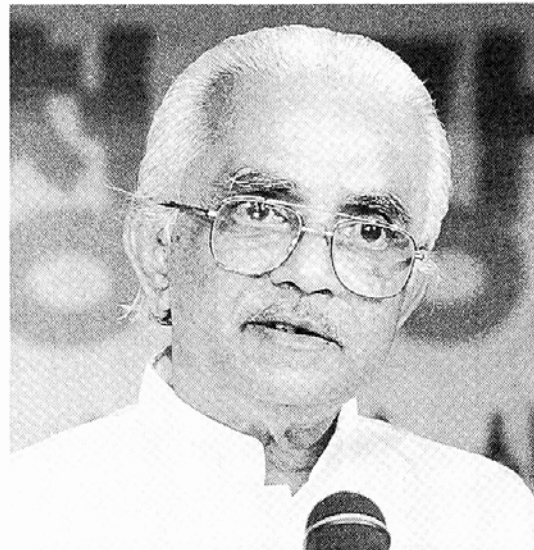
▲실제로는 1957년인데요. 저는 농촌공동체의 마을주민들을 함께 모아서 그들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비폭력적 행동으로의 길을 보여주고 했습니다. 가난한 하나의 마을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1만3천3백여 마을에서 이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르보다야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선 저는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봉사함으로써 얻어지는 행복, 이것이 모든 이가 원하는 행복이므로 민

휴머니스트로 존경했던 간디도 정치적 경제적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비폭력이 중요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것에는 아무런 갈등이 없으므로 부처님과 간디의 가르침을 접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요. 부처님 가르침의 의미를 되새겨 제시된 해결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항상 가난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세계에 당면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환경



기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특히 청년불교지도자들과 스리랑카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합니다. -이번에 2번째 한국 방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에 대해서 느끼신 소감은 어떠신지요.

▲지난 30일 경주를 다녀왔습니다. 석굴암을 보며 부처님의 가

르침을 신봉하던 사람의 정수가 그대로 표현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JTS를 비롯한 여러단체들의 다양한 활동에 동의하고 정신적 문화적 가치를 소중히 하는 한국불자들에게 존경심을 표하게 되었습니다.

김원우 기자

아리아라트네는 누구

아리아라트네박사는 1958년 콜롬보 니란다대학 교수직 교사와 학생들을 모아 한 가난한 마을에서 슈라마디나 캠프를 만들었다. 사회과학자이면서 부처님의 사상과 간디정신의 실천가인 그의 사르보다야 슈라마디나운동은 중국 태국 필리핀에까지 확장되는 등 21세기를 여는 새로운 대안으로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고

부처님·간디정신 실천가

있다. 11,300개의 공동체 마을을 만든 그는 간디평화상 막사이사 이상 일가기념상 허버트 H 험프리스상 등 10여개 상을 수상했다. 현재 아시아위원회위원장 세계은행 자원회의 NGO멤버 세계종교인평화회의(KCRP)대표 세계종교의회 대표 세계학술원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지구의 평화교육> 등 6권의 전집이 있다.

도필선 기자

만1천여 공동체 마을개발 빈민구제 전개 인류과제 환경보호... “봉사로 자비실천을”

이라는 뜻이고 ‘슈라마디나’는 시간 노력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나누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현재 수천만명의 지원자와 훈련된 일꾼들이 참여하여 법률서비스와 이음, 유아교육, 주부의 교육과 수입증진, 환경과 관련된 제안, 대안에너지 개발계획, 분쟁해결훈련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1958년부터 사르보다야 슈라마디나운동을 펼쳐오신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 운동을 펼쳐게 된 동기와 성과를 들려 주십시오.

족 종교등의 장애를 넘어서 자신을 각성시키고 점차 더 나아가 사회 국가등으로 확대시켜 살기좋은 사회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방사선계는 간디정신과 불교사상의 실천가로 비폭력을 통한 사회 경제 정치의 변화를 추구하여 세계인들의 찬사를 받고 있는데요.

▲사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비폭력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폭력이 우리삶에서 기본적인 원리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친 최초의 인간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을 인류최고의

의 파괴입니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보호하고 지지하는 체제로 만들어 가야합니다. 강 바다 산 공기를 우리가 해야할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사회에는 개인의 개발과 사회의 완성을 염원하는 청년 불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랑 없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불교 청년지도자들이 지도력을 발휘하여 모든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대자비의 가르침을 실천하

선우도량 ‘사찰환경 보존과 개발’ 좌담회

“사찰 수행환경은 불교의 수행, 수행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전통적 공간의미에서 전통문화의 계승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기여하는 물리적 사회적 요건이자, 지구상 모든 사람들이 삶의 가치와 정신적수양을 위한 수행의 공간으로 의미가 확대되어야 한다. 고로 집단이기주의에서 벗어난 사찰환경보존위원의 1차적 개발반대가 아니라 민족적정기 수호를 위한 환경보호위원의 개발반대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사찰수행환경 및 불교계 환경운동의 나아갈 방향을 이렇게 정의했다. 전국의 조계종 소속 6백92개 전통사찰중 50여개 사찰이 개발

담회를 개최했다. 개발권자와 분청중인 선암사 금산사 증산사 관계자들의 현황 설명으로 시작된 이번 좌담회에서 금산사 영진스님은 “지역개발과 그로 인해 개발이익을 기대하

환경 및 지역환경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스님들이 적극적인 활동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불교환경교육원 유정길 사무국장은 “개개사찰별로 이뤄져 오는 불교환경운동을 지양하

중단차원의 대책기구미련은 물론 환경운동을 위한 충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이에대해 조계종 총무원 문화국장 덕신스님은 “(가칭)사찰환경보존위원회”를 구성, 중단차원의 대책기구를 상설화하는 방안과 ‘환경교서’ 발간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경운연합 이치법 사무처장은 “현대사회에서 지역개발의 무조건적인 반대는 더이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하고 “개발과 보존이 양립할 수 있는 가운데 불교계의 환경운동이 전개되어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필선 기자

“범국민 사찰환경대책위 구성하자”

50여 전통사찰 훼손... 조계종 ‘환경교서’ 발간 검토

우선정책으로 수행환경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선우도량(공통대표 도법 현봉)이 지난 10월 31일 녹수청산에서 ‘사찰의 수행환경보존과 개발문제’라는 주제로 좌

담회를 개최했다. 개발권자와 분청중인 선암사 금산사 증산사 관계자들의 현황 설명으로 시작된 이번 좌담회에서 금산사 영진스님은 “지역개발과 그로 인해 개발이익을 기대하

고, 중단과 지역사찰 환경단체가 발권자와의 분청보다 오히려 더 극한적일 수 있다”며 “지역주민을 합리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설득해 오히려 그들이 사찰수

중단차원의 대책기구미련은 물론 환경운동을 위한 충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이에대해 조계종 총무원 문화국장 덕신스님은 “(가칭)사찰환경보존위원회”를 구성, 중단차원의 대책기구를 상설화하는 방안과 ‘환경교서’ 발간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경운연합 이치법 사무처장은 “현대사회에서 지역개발의 무조건적인 반대는 더이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하고 “개발과 보존이 양립할 수 있는 가운데 불교계의 환경운동이 전개되어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생활속의 불교 96

자기를 사랑한다면 자기를 구속하는 삶

누구나 본능에 속하는 세가지 욕망을 지니고 있다. 식욕 수면욕 음욕이다. 이 삼욕(三欲)은 생명력의 표현이다. 살아있기에 그런 욕망은 자연스럽다. 따라서 이 삼욕을 잘 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그것의 충족을 위한 방법의 선택에 대해서만 잘 잘못을 따질 뿐이다.

욕망이란 자기가 좋아하는 것,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소유하려는 정신 작용이다.

따라서 말을 바꾸면 욕망이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어떤 이유로든 좋아하기 때문에 그 무엇인가를 취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말한다. 그런데 그 취하려는 마음이야말로 자기에 대한 사랑의 다른 표현이다. 자기를 무마르게 사랑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 좋아하는 것을 꼭 취하고 싶어한다. 따라서 욕망, 갈애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일을 꾸미게 한다.

욕망의 씩이 트면서 하나의 세계가

그것을 중심으로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세계란 결국 욕망·갈애의 산물인 것이다. 세계를 만드는 것도 부시는 것도 다 욕망이 낳는 행동력에 달려있다.

강한 욕망은 뭔가를 크게 이루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반면에 강한 고통을 끌고 다닌다. 욕망의 강도와 고통의 강도는 정비례하는 것이다. 우리들이 지닌 욕망 중에 이 욕신을 지닌채 오래 존재하고 싶다는 욕망이 가장 강하다. 이렇듯 고통과 짝을 이루지 않는 욕망이란 없다. 완전한 인간이 되기까지 모든 욕망엔 고통이 반드시 따른다. 욕망 그 자체는 자기를 구속하는 것이요 구속은 곧 고통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욕망을 품게 되었는데 그 욕망이 자기에게 고통도 함께 가져다 준다면 그런 자기 사랑



이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랑인가. 저를 사랑한다면 고통을 안겨주다니...

불가에서 욕망을 번뇌라 하는 까닭은 바로 거기에 있다.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진정한 자기 사랑인지를 모르고 바깥의 사물과 형상에 미혹되어 고통을 불러들이고 있으니 욕망이 어찌 번뇌가 아니라 하라.

욕계사후(欲界思惑)이라는 말이 있다. 이 욕계에서 허우적대는 중생들은 누구나 사물과 형상을 대할 때마다 탐·진·치·만의 마음을 일으킨다는 뜻이다. 탐하고 화를 내고 어리석은 생각을 일으키고 자만에 빠진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중생들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고작 탐·진·치·만의 어리석은 사랑에 빠져 고통스러워 한다는 것이다.

무엇이 진정한 자기 사랑인가. 역대 조사들은 ‘쉽’ ‘놓음’ 이아말로 진정한 자기사랑의 길이고 완벽한 충족의 길

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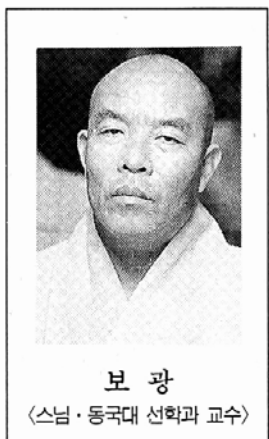
누구를 믿고 사나

지난 9월 중순경에는 동해에 나타난 북한 무장공비가 타고 온 잠수함 때문에 온 나라안이 긴장하였으며 불안에 떨었다. 이때 우리 국군은 전력을 다하여 공비 소탕에 나섰고, 국민들은 그나마 군만 믿고 잠들 수 있었다. 우리들은 간첩을 잡기 위해 추석 명절도 쉬지 않고 수색하던 군인들을 보고 안심할 수 있었다. 그런 한편 70만 대군의 상징이었던 국방부장관이 공비 소탕도 다하기 전에 옷을 벗고 잠으로 가고 말았다. 국민들이 공비 때문에 떨고 있을 때 국방부장은 사기꾼에게 협박을 당하면서 떨고 있었으니, 그에게는 공비보다도 사기꾼이 더 무서웠을 것이다. 국방의 최고 책임을 맡고 있는 국방부장이 이러하니 공비가 어찌 제대로 잡힐 것이며, 북한이 마음놓고 간첩을 납파하지 않겠는가? 그나마 운이 좋아서 잠수함이 좌초되었으며, 우리 군은 소말에 잡힌 죄를 가지고 소란을 떨었다. 만약 잠수함이 좌초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우리의 안방을 마음대로 드나들더라도 어찌 알 수 있었겠는가? 이를 생각하면 현 기풍이 날 정도로 아찔해진다.

서 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을 이적행위자라고 한다. 이적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살아남기 어렵다.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재고의 여지가 없다.

의상스님의 국방 법문

과거의 지도자들이 무기를 구입하면서 검은 돈이 왔다갔다 한 사실을 우리는 많이 보아 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렇듯 근사한 유복사이다. 유복사생의 이름이 최대로 요명된 사건이었다. 이와 같은 일이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으니 얼마나 통탄할 일인가? 김대통령은 기회를 때마나 나는 한푼의 돈도 받지 않았다고 말한다. 실사 대령은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밀의 참모들이나 장관들이 부정한 돈을 받고 있다면 이는 최고책임자의 관리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군대가 무기구입을 하면서 그 성능과 가치를 뒷전으로 하고 뇌물에 의해 구입무기가 결정되며, 진급에는 능력과 공적이 참고되지 않고 더 큰 선물을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었다고 하니 우리 국민은 과연 무기를 믿고 살아야 할 것인가? 나라를 지키는 국방에 이와 같은 부정 군대가 적에게 무기를 팔아먹고 결국에는 패전하고 말았던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그러므로 해마다 수많은 세금으로 무기를 구입하면서도 북한에서 개발한 무기는 하나도 없다고 하니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겠는가?



의상 (스님·동국대 석학과 교수)

신라시대의 문무대왕은 중국 당나라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당대의 최고 엘리트였던 의상스님에게 국방에 대하여 한마디의 조언을 구하면서 서러벌에 큰 성을 쌓고 싶다고 하였다. 이때 의상스님은 흙이나 돌로 큰 성을 쌓기보다는 국민들 모두가 마음의 성을 튼튼히 쌓아야 적의 침입이 없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국방과 안보를 위하여 온 국민의 단결된 마음가짐과 물심양면의 안보의식이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각오가 새로워지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최선의 장비를 구입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한낱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부디 마음에 구멍 뚫린 국방이 아니라 국민이 믿고 살 수 있는 국방이 되어주길 바란다.

패망한 나라의 군인들

국방이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나라가 튼튼해야 아들을 가든지 걱정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패망한 나라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의 장개석이 이끄는 군대는 당시의 상황으로는 모택동 군대보다도 훨씬 더 막강한 무기와 잘 훈련된 군인들이었으며 연합군의 지원도 받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막바지에는 본토를 내주고 집으로 쫓겨와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 하나는 군인 정신의 해이와 지도자들의 부정과 부패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즉 장개석 군대의 지도자들 중에는 최신허를 적에게 팔아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도 많았다. 월남의 패망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전쟁에

기를 팔아먹고 결국에는 패전하고 말았던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그러므로 해마다 수많은 세금으로 무기를 구입하면서도 북한에서 개발한 무기는 하나도 없다고 하니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겠는가?

신라시대의 문무대왕은 중국 당나라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당대의 최고 엘리트였던 의상스님에게 국방에 대하여 한마디의 조언을 구하면서 서러벌에 큰 성을 쌓고 싶다고 하였다. 이때 의상스님은 흙이나 돌로 큰 성을 쌓기보다는 국민들 모두가 마음의 성을 튼튼히 쌓아야 적의 침입이 없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국방과 안보를 위하여 온 국민의 단결된 마음가짐과 물심양면의 안보의식이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각오가 새로워지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최선의 장비를 구입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한낱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부디 마음에 구멍 뚫린 국방이 아니라 국민이 믿고 살 수 있는 국방이 되어주길 바란다.